신한은행

Finance, Move Together

신한은행 2024 ESG Special Book

1.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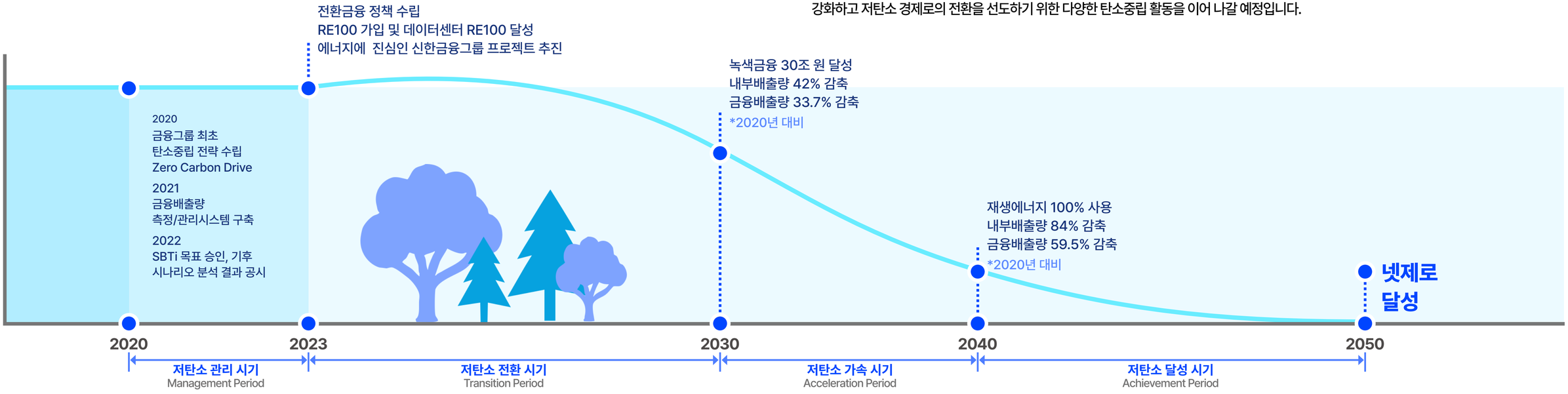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한은행의 노력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신한은행은 사업 전략의 주요 축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인 적도원칙에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 적도원칙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매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제 기준 준수 여부, 이해관계자 참여, 고충처리 매커니즘 구축 여부 등을 심사해 금융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국내외 석탄발전소 관련 PF와 채권 인수를 중단하였습니다. 더불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RE100을 선언하며, 한국동서발전과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컨버전스와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합작 법인(JV)을 설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금융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산정 및 Net-Zero 추진

신한은행은 전세계 공동 목표인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23년 금융이 할 수 있는 녹색금융 확대와 임직원 모두 함께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사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녹색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통해 금융 배출량과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1.5°C 시나리오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1년에는 대출, 투자, PF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산출방식은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기준에 따라 측정 자산을 분류하고, 배출 주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금융회사의 기여도를 반영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NZBA(탄소중립 은행 연합)에 가입하고 워킹그룹에 참여해 대출·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Net-Zero로 만들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경부 주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협약과 2023년 민간 주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삼성전자-금감원과의 MOU를 통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2. Governance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감독하는 거버넌스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신한은행은 행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모니터링과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CEO와 사외이사 전원을 포함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ESG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결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를 통하여 친환경 금융실적 및 금융배출량, 배출량 집약도 등 기후 변화 관리를 위한 정책 및 프로세스,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ESG 전략과제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고, 주요 기후리스크 요인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4번의 ESG위원회와 14번(정기 4회, 임시 10회)의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ESG위원회 운영 현황

일시	구분	NO	안건
2024.03.21	보고	1	2023년 전행 ESG 전략과제 리뷰 및 2024년 전행 ESG 전략과제 운영
	보고	2	ESG본부 주요사업 현황 및 계획
	보고	3	10억원 초과 사회공헌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4	『신한은행 2023 ESG POP UP 10』 발간
2024.05.23	보고	1	<Environmental>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2	<Social>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3	10억 초과 사회공헌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
2024.08.22	보고	1	2024 상반기 전행 ESG 전략과제 추진실적
	보고	2	< Environmental >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3	<Social>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4	10억 초과 사회공헌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
2024.11.21	보고	1	국내외 ESG공시의무화 현황 및 신한은행 ESG 보고서 발간방향
	보고	2	< Environmental >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3	<Social> 핵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4	10억 초과 사회공헌기부금 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진의 역할

신한은행은 지속가능경영과 기후리스크 대응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경영진이 참석 대상인 ESG경영위원회와 리스크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ESG 영역의 추진 과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6회의 ESG경영위원회 및 16회의 리스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더욱 명확화하고 정기적 보고체계를 구비하였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친환경 금융 실적, 내부배출량 및(Scope1,2), 금융배출량(Scope3)을 경영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역량 강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은 물론 전 임직원들의 기후 리스크관리 역량 구축, 훈련 및 적절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ESG 관련 정보와 함께 임직원이 본업을 수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실무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있습니다.

1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을 소개합니다!	지주 ESG기획팀
2	“Now or Never” 기후 위기 심각성과 대응방안	은행 ESG기획실
3	ESG공시로 보는 신한의 기후금융, 다양성, 인권	지주 ESG기획팀
4	녹색분류체계 및 대응과제	은행 ESG기획실
5	영업에 도움이 되는 ESG 컨설팅	은행 기업금융부
6	탄소발자국이 뭐길래? 탄소발자국은 왜 줄여야 할까요?	은행 ESG기획실
7	ESG에도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은행 리스크총괄부
8	야, 너두 ESG 할 수 있어!	은행 상생금융부
9	신한 ESG Value Index 기반 ESG 성과측정 왜 필요할까요?	지주 ESG기획팀
10	그린IB ESG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 미래 ‘먹거리’	은행 그린IB Lab

2. Governance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감독하는 거버넌스

관리조직의 역할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경영(ESG) 구동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해 기존 리스크관리 조직 외에 ESG 관리 조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G기획실과 리스크총괄부를 전담 부서로 두고, 기후변화 조직과 ESG 관리 영역의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며 각 영역의 세부 과제를 수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기후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총괄부와 ESG기획실에서 기준, 관리 체계,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며, 각 사업 부문은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ESG 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ESG 추진 부서의 부서장이 참여하는 ESG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SG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을 ESG 관련 활동의 목표와 현황의 공유 뿐 아니라 각 부서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재무적, 사회환경적 영향을 논의하고 협력 어젠더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고도화함으로써 ESG 추진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논의 Agenda 발전 Process

실무협의회	→	ESG운영위원회	→	ESG경영위원회	→	ESG위원회
실무진 협의체		부서장 협의체		경영진 협의체		이사회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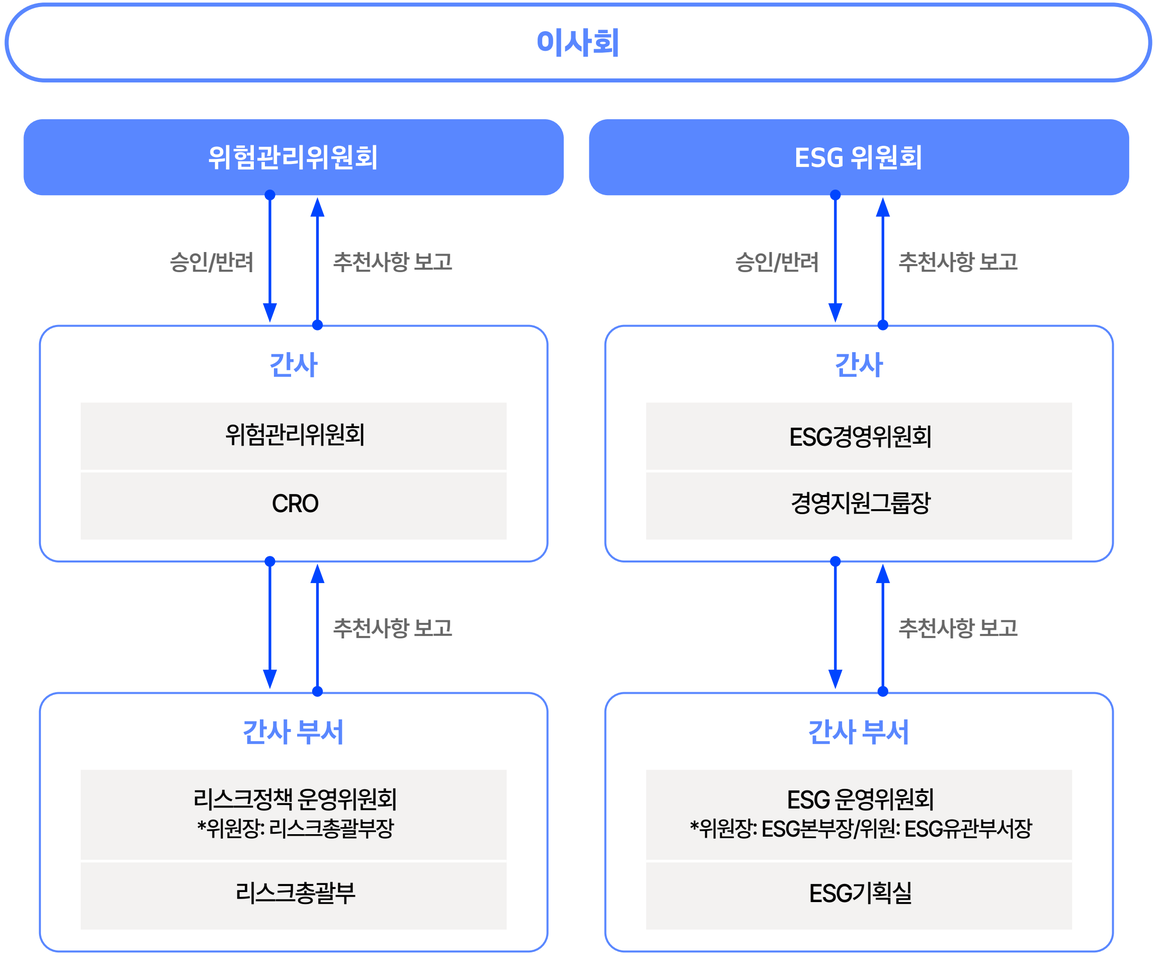
ESG 및 기후리스크 업무 구분

구분	기후리스크 관리	ESG 추진
리스크 식별	• 기후관련 위험요인 식별	• 기회요인 발굴
리스크 평가	•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및 DB 구축 • 기후 시나리오 분석	• 발굴된 기회요인 시행
리스크 관리	• 금융배출량 대시보드 운영 • 고탄소업종 선정 및 관리 • 환경/사회 유의영역 모니터링	• 탄소중립에 연계한 금융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리
공시 및 공개	• 기후리스크 관련 공시 • ESG 보고서 작성 지원	• ESG성과 공시 및 기후금융보고서

ESG 및 기후리스크 관리 조직

구분	기후리스크 총괄	ESG 구동체계 총괄
전담 부서	리스크총괄부	ESG기획실
경영진 협의체	리스크정책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공시 및 공개	위험관리위원회	ESG위원회

신한은행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3. Strategy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식별

신한은행은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단기/중기/장기 시기별로 재무적 영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행 및 물리적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 UNEP FI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 관련 자료와 WEF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등을 반영하여 30개의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금융사의 특성을 반영, 위험 요인에 있어서는 신한 자체에 대한 위험 뿐 아니라 고객의 위험에 따라 신한은행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요인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에서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선정하고 시점별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식별 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Step 1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식별 및 평가 대상 선정	- TCFD 권고안 및 동종업계 분석 - 현시점 발생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기후 이슈 검토 - 유관부서 담당자 및 외부 인터뷰
Step 2	재무영향 분석 및 리스크/기회 관리 우선순위 선정	- 시나리오 선정 및 최신화 작업 시행 -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분석 - 요인별 영향도에 따른 관리 우선순위 선정
Step 3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리스크 및 기회 우선순위 요인 관리 계획 수립 - 그룹 관리 이행 방안 추진 - 이행시힝 분기별 정기 점검
Step 4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 관리 현황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양진에 보고되어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집(감축목표 설정 등)에 반영

기후변화 리스크/기회 요인의 기간 범위

신한은행은 기후 리스크를 시간 범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보고연도부터 다음 해인 0년부터 1년까지로 설정하며, 중기는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재무적 영향도(BIS 비율)가 유의미하게 변동되는 5년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시나리오 상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5년 이후로 설정하며, 이 시점 이후의 기후 리스크는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 역시 동일한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기후 리스크 중 전환 요인은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기회 요인은 주로 단기(0년~1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과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저탄소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친환경 사업 기회가 창출될 시점을 중기(1년~5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연되거나 무질서한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Time Horizon

Time Horizon

기간 정의	단기 (0~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
기간 별 전략, 계획이 연계되는 방식	단기에 예상되는 내부 배출량 관리를 위해 연간 4.2%p를 감축하는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확산을 위해 자금 공급 목표를 기반으로 대출/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기에 있어 유의미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저탄소 전환 시장의 확대 등 현상을 연계하여, 금융배출량 집약도 관리 및 전환금융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지연된 또는 무질서한 이행의 시나리오에 맞춰 2050년까지 신한금융그룹의 Scope3인 금융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며, 그보다 앞선 시점인 최소 2044년까지는 선행하여 내부배출량(Scope1,2)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Strategy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

전환 부문에서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탄소세 등 정책 기반의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철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평균 기온 상승은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금융기관의 생산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로는 대한민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과 폭우가 거래 기업에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균 기온 상승이 전 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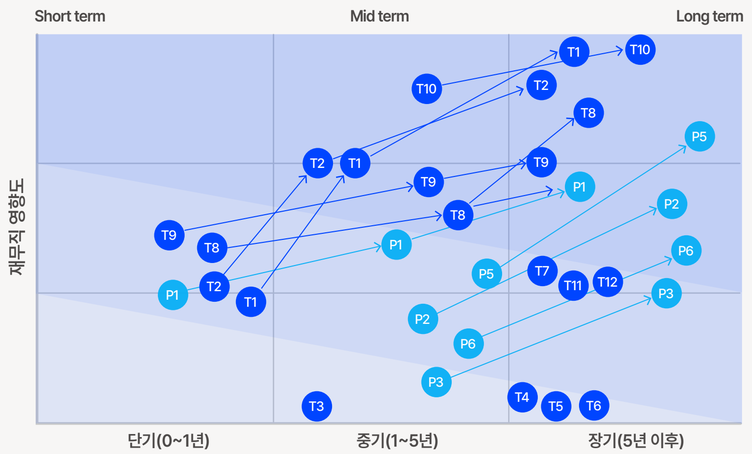
기후변화 기회 요인

신한은행은 친환경 교통수단 및 건축시설 확대로 인해 대출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한 자금 조달과 공급이 중요한 재무적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탄소포집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더불어, 탄소 관련 선물 거래나 펀드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며, NGFS 시나리오의 '지연된 이행'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적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 솔루션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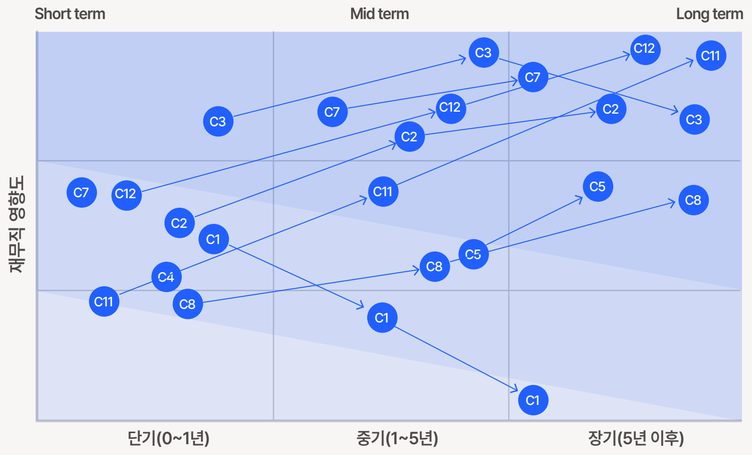
구분		요인
전환 리스크	정책 및 법률	T1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리스크
		T3 환경 관련 공시 의무화
	기술	T4 저탄소 기술 전환 실패
		T5 에너지 효율성 개선 비용 증가
		T6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실패
	시장	T7 고객(기업/리테일)의 이탈
		T8 원자재 가격(물가) 상승
		T9 에너지 비용(전기료, 유류비) 상승
	평판	T10 투자자의 투자 철회
		T11 고객(국민 등) 부정적 인식 증가
		T12 이해관계자 단체의 부정적 평판 확대
물리적 리스크	급성	P1 태풍(강풍)/홍수/폭우(침수)
		P2 산불/산사태
		P3 한파/폭설
		P4 지진
	만성	P5 평균 기온 상승
		P6 해수면 상승

구분	요인
자원 효율성	C1 효율적 에너지 사용
	C2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C3 친환경 건축 시설 확대
에너지 자원	C4 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
	C5 탄소 시장 참여
	C6 에너지 관련 신기술 적용
상품 및 서비스	C7 저탄소 상품/서비스 개발 확대
	C8 기후변화 적응 및 보험 솔루션
	C9 기술 혁신을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C10 소비자 상품 선호도 변화
	C11 기후변화 관련 신규 시장 창출
	C12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활용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별 영향도



기후변화 기회 요인별 영향도



3. Strategy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재무적 영향도 보통: ○ 약간 중요: ◎ 매우 중요: ● / 시점 단기: 0~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상

유형	코드	리스크 요인	시점			잠재적인 영향	대응 현황 및 계획
			단기	중기	장기		
정책 및 법률	T1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	◎	●	• 기후관련 위험요인 식별	(단기) 기업의 배출권 데이터 확보 및 트렌드 분석, (중기) 고탄소 업종 전환금융 확대 (장기) 고위험 업종의 포트폴리오 관리/조정
정책 및 법률	T2	탄소세 등 정책 기반의 비용 증가	○	◎	●	• 수출 기업의 경우 탄소세 강화와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규제등으로 수출 비용 증가 • 현지화 추진 과정에서 운영 비용 증가	(단기) 내부탄소가격 기반의 배출량 감축 노력 및 투자 의사결정, (중장기) 친환경 기업,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확대 내부탄소가격 지속 모니터링 및 글로벌 수준으로 인상
시장	T8	원자재 가격(물가) 상승	○	○	●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중장기) 핵심 원자재 공급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탄소 리스크 모니터링
시장	T9	에너지 비용(전기료, 유류비) 상승	○	◎	●	• 에너지 비용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	(단기)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교체 등 설비 투자 (중장기) REC, PPA 체결 확대를 통한 RE100 추진 안정성 확보재생에너지 생산 기업 투자 확대
평판	T10	투자자의 투자 철회		●	●	• 고객과 투자자 우려 증가로 인한 투자 축소 • 기후변화 대응 미흡시 고객 선호도 감소 및 이미지 하락으로 경제적 타격	(중장기) CDP, SBTi, TCFD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지속적인 참여를통한 기후 정보 공시 강화 및 이행 약속
급성	P1	태풍(강풍)/홍수/폭우(침수)	○	○	◎	• 직접 운영 및 공급망 상의 사업장 중단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 연쇄 발생 • 노동자 건강 악화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영업이익 하락 • 시설 손상, 기존 자산 조기 처분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및 자본 비용 증가	(중장기) 태풍/홍수/폭우 고위험 및 저위험 지역 식별 및 투자 비중 조정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구성원/협력사 대상 안전수칙 배포/교육 진행
급성	P2	산불/산사태		○	◎	• 직접 운영 및 공급망 상의 사업 시설 손상에 따른 복구 비용 증가 • 산지에 위치한 죽전 데이터센터의 시설 손상 및 인재 발생 가능	(중장기) 산불/산사태 고위험 및 저위험 지역 식별 및 투자 비중 조정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구성원/협력사 대상 안전수칙 배포/교육 진행
만성	P5	평균 기온 상승		○	●	• 전력 및 수도 사용량 증가, 노동 생산성 저하 • 장기적인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중기) 기상변화에 취약한 건물 및 지점 파악 (장기) 사업장별 위치 특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 계획

3. Strategy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재무적 영향도 보통: ○ 약간 중요: ◎ 매우 중요: ● / **시점** **단기**: 0~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상

유형	코드	리스크 요인	시점			잠재적인 영향	대응 현황 및 계획
			단기	중기	장기		
자원 효율성	C2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	◎	●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운송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한 기업고객의 자금 수요 증가	**(단기)**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금융상품 출시 임직원 전기차 구매 지원 등 내부적인 확대 도모 **(중장기)** 전기차 충전소,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공공인프라 투자
자원 효율성	C3	친환경 건축 시설 확대	◎	●	◎	• 고정 자산(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등) 가치 상승 • 에너지 효율적 건축 설계로 운영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단기)** 친환경 건축물 및 프로젝트 관련 금융상품 출시 **(중기)** 직접 운영 및 공급망 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미국 친환경 건축물인증 (LEED) 취득 확대
에너지 자원	C5	탄소 시장 참여		○	◎	• 고정 자산(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등) 가치 상승 • 에너지 효율적 건축 설계로 운영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중장기)** 배출권 시장 조성을 통한 저탄소 사회 견인탄소배출량 지속적 관리 및 탄소배출권 기부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상품 및 서비스	C7	저탄소 상품/서비스 개발 확대	○	◎	●	• 친환경 금융 상품 개발 위주의 지속가능경영전략 수립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 금융 상품에 대한 기업 고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	**(단기)** 친환경 테마펀드, 재생에너지 인프라 PF 등 녹색금융 상품 확대 **(중장기)** 녹색금융 상품 실적 지속 모니터링
상품 및 서비스	C8	기후변화 적응 및 보험 솔루션	○	○	◎	• 기후변화 적응 니즈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예: 보험 리스크 이전 제품 및 서비스)을 통한 수익 증대	**(중장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시장	C11	기후변화 관련 신규 시장 창출	○	◎	●	• 산업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 시장의 자금 수요처 선제적 확보 • 핀테크 등 신기술 접목 금융상품의 다각화로 미래 시장 선점 및 수익 증대	**(단기)** 저탄소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투자 및 성장 지원 **(중장기)**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인프라투자 확대
시장	C12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활용	○	●	●	• 공공부문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간접운영비 감소	**(단기)** 공공부문 인센티브 및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중장기)** 에너지 관련 국비 지원 지자체 사업 참여

3. Strategy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신한은행 시나리오 분석론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특정 시기의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로 1~2년 동안의 단기 재무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관찰되는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현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자산인 여신 상품의 만기와 분석 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 현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후 리스크의 복잡성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특히, 기후 리스크의 파급 경로와 영향은 산업, 경제, 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리스크의 파급 경로와 영향도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100년까지 2030년, 2050년, 2080년, 2100년도 시점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신용리스크 내 신용 위험가중자산(RWA) 및 대손충당금(예상손실)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기후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정서 변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손실을 이행리스크로, 태풍, 홍수 또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의 증가와 장기적 기후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금융손실로 물리적 리스크로 분석하였습니다.

① 위기사항 시나리오 설정

금융감독원 제시

종류	• 무정책(Current Policies), • 지연전환(Delayed Transition) • 2도 이하(Below2'C) • 탄소중립(Net Zero 2050)	변수	• 거시경제지수(GDP, 금리, 물가상승률 등) • 기후관련변수(탄소가격, CO2배출량 등) • 지역별 변수(홍수, 태풍피해액 등) • 업종별 PD,LGD 상승배수 등

② 은행전체 신용리스크 전이 영향

- 리스크유형별 분석 결과 취합, 정리
- 기후리스크의 신용리스크 전이로 인한 영향도 분석

③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유형별 익스포저대손충당금(신용손실) 신용위험가중자산(RWA) 분석
- 업종별 대손충당금(신용손실) 분석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신한은행은 NGFS 4차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발한 시나리오 중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2°C 이하, 지연된 이행, 현재 정책 유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NGFS 기후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 시장금리, 탄소가격, 발전믹스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탄소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개별 기업의 미래 재무상태표를 추정하였습니다. 추정된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고, 해당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예상손실 등을 분석하여 2100년까지 신한은행의 자본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악화된 BIS비율도 내부관리목표비율 크게 상회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후회복력에 대한 별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의 기업 고객 중 유의미한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신용평가모형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기간에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지구 온도는 2050년에 약 2°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행리스크와 역의 관계에 있는 물리적 리스크가 확대/전파되어, 전 지구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이행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1	무정책 (Current Policies)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구 온난화가 심화
02	지연전환 (Delayed Transition)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다가 '2030년 이후부터 2'C 목표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
03	2도 이하 (Below 2'C)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감축산업화 이전(1890~1900년) 대비 평균온도 상승폭을 2'C 이하로 제한
04	탄소중립 (Net Zero)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1850~1900년) 대비 1.5'C 이하로 제한

3. Strategy

기후 시나리오 분석론

시나리오별 재무적 영향

현재정책 유지

중기(5~10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 가격 상승, 에너지가격 변동이 없어 이행리스크 충격이 없고, 국내총생산, 금리, 물가 등 일부 거시경제 변수 영향에 따라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10년 이후) 2030년 이후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되고 국내총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적 영향은 큰 변동 없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물리적 리스크는 점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50년 이후 지속적이며 점증하는 형태로 발현)

지연된 이행

중기(5~10년) 2030년까지 탄소 정책 변화가 없어 기업의 영향은 "현재 정책 유지"와 동일한 수준을 보입니다.

장기(10년 이후) 탄소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직·간접배출비용 증가 및 금리상승(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금융비용은 상승하면서 고탄소·고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크게 악화됩니다. 탄소가격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행 10년 후부터는 저탄소 에너지원 채택, 탄소감축 설비투자 등의 기회를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기업의 부담이 점차 완화됩니다.

2°C 이하

중기(5~10년) 저탄소 경제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에서, 탄소가격의 점진적 상승 및 기회 창출을 통한 빠른 회복세 전환(시행 3~4년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감소하나 탄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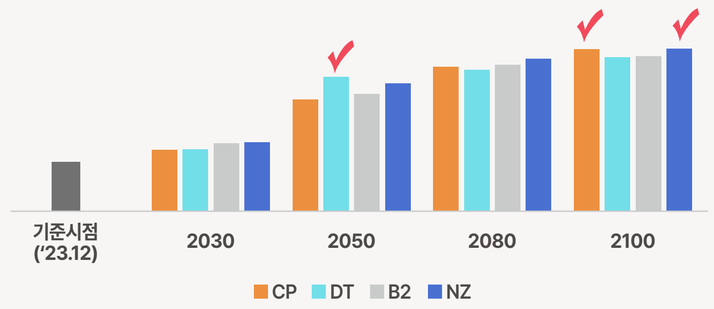
장기(10년 이후) 저탄소 산업 및 탄소감축 투자 활성화 등으로 206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Zero'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행과정에서 자본비율은 회복되지 않으나, 2080년 이후 유지됩니다

2050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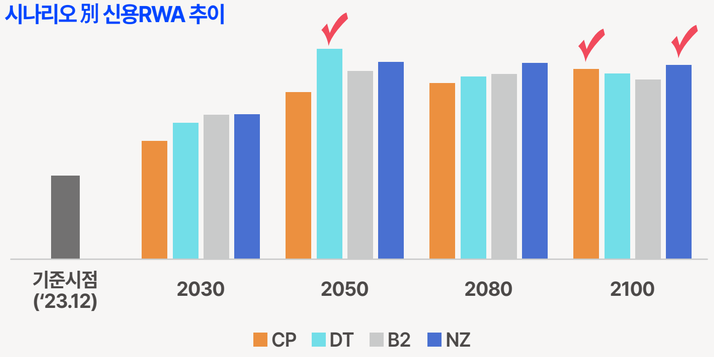
중기(5~10년) 저탄소 경제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에서, 탄소가격의 점진적 상승 및 기회 창출을 통한 빠른 회복세 전환(시행 3~4년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감소하나 탄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장기(10년 이후) 2047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Zero'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높은 탄소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행과정에서 금리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자본비율은 회복되지 않으나, 하락폭은 감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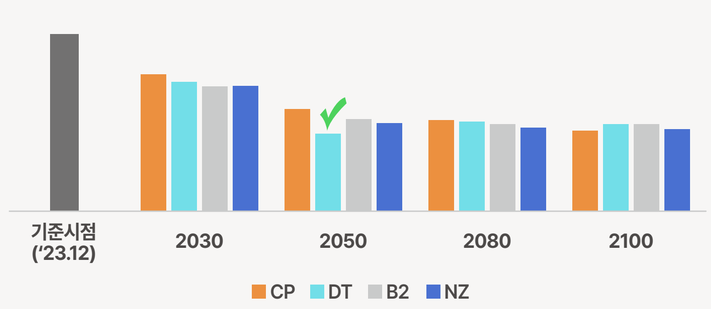
시나리오 別 대손충당금 추이



시나리오 別 신용RWA 추이



BIS 자기자본비율



4. Risk Management

기후 리스크 및 기회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화 프로세스

주요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요인 파악과 대응

신한은행은 주요 기후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한 뒤, 우선순위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전담 부서는 투자 및 대출 은행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배출량'을 설정하고, 이를 월별로 점검합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와 고탄소 업종 전환금융을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와 기회 요인은 자체 평가를 통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후 리스크는 NGFS 4차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발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탄소 업종의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리스크 대시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에 대해서는 연간 녹색금융 목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녹색금융상품 발굴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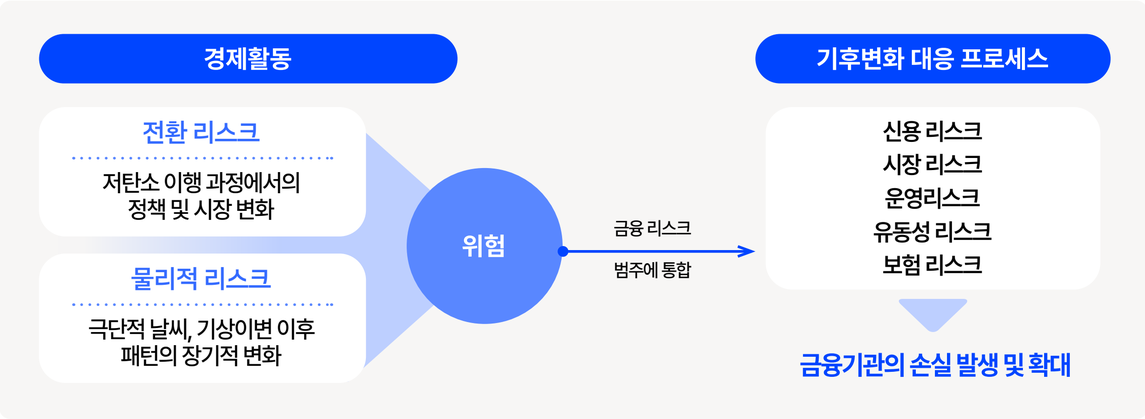
	기후 리스크 요인 측면- 금융배출량		기후 기회 요인 측면- 녹색 및 전환금융	
기후 관련 요인 식별		• 탄소배출량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인식 1) 세금, 배출권 등 비용 증가 2)기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거래 기업의 배출량을 금융 회사 리스크로 재해석 - Scope3인 금융배출량 지표 통해 기후 리스크 평가 진행		• 저탄소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 인식 - 녹색 금융 상품,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 신사업 • 고탄소 업종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기술개발을 기회 요인으로 파악 -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
요인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 그룹 총 자산 기반 금융배출량 측정 - 금융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측정 - 기후 리스크를 과소하지 않기 위해 측정 범위는 추정 데이터 포함 • 그룹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기후 리스크 통합		• 연간 녹색금융 목표 실적 관리 - 그룹사별 상품 구성 기반의 녹색금융 정기 실적 점검 - 연 신규 누적 30조 원(2030년까지) 목표 실적 관리 • 여신/투자 심사 시, 녹색금융 진위 여부 파악
우선순위 선정방안		• 기후 리스크 요인 관련 중대성 평가 - 금융배출량 기반의 업종별 기후 리스크 자산 및 배출량 변동성 점검 - 자체적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 - NGFS, IPCC 기반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 - 재무적 영향도 도출		• 기후 기회 요인 관련 중대성 평가 • 녹색 및 전환금융 시장 중장기 트렌드 분석
관리 계획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반의 회복탄력성 강화 추진 •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 - 정기적 리스크 대시보드 모니터링 통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속		• 그룹 녹색금융 기준 및 체계 마련 - 전환금융 정책서 수립 등 • 그룹 녹색금융 목표 설정 및 진척사항 정기 점검 - 신규 녹색금융 발굴 및 그룹사별 녹색 상품 출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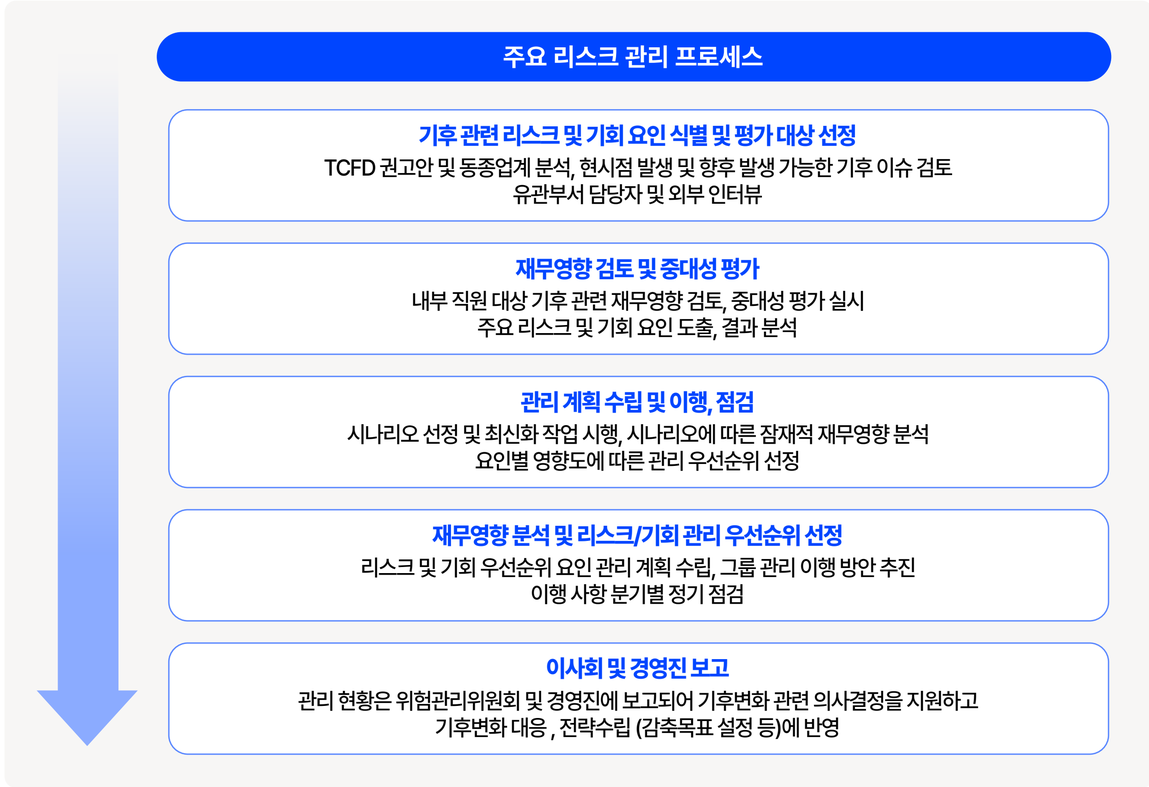
4. Risk Management

기후 리스크가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규정 체계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이행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의사 결정시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유의영역을 선정·관리하고, 유의영역에 해당되는 대규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경사회 리스크를 평가하여 필요시 리스크 경감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 기후 리스크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및 모니터링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TCFD 권고안에 기반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및 DB구축, 기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수립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와 규정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규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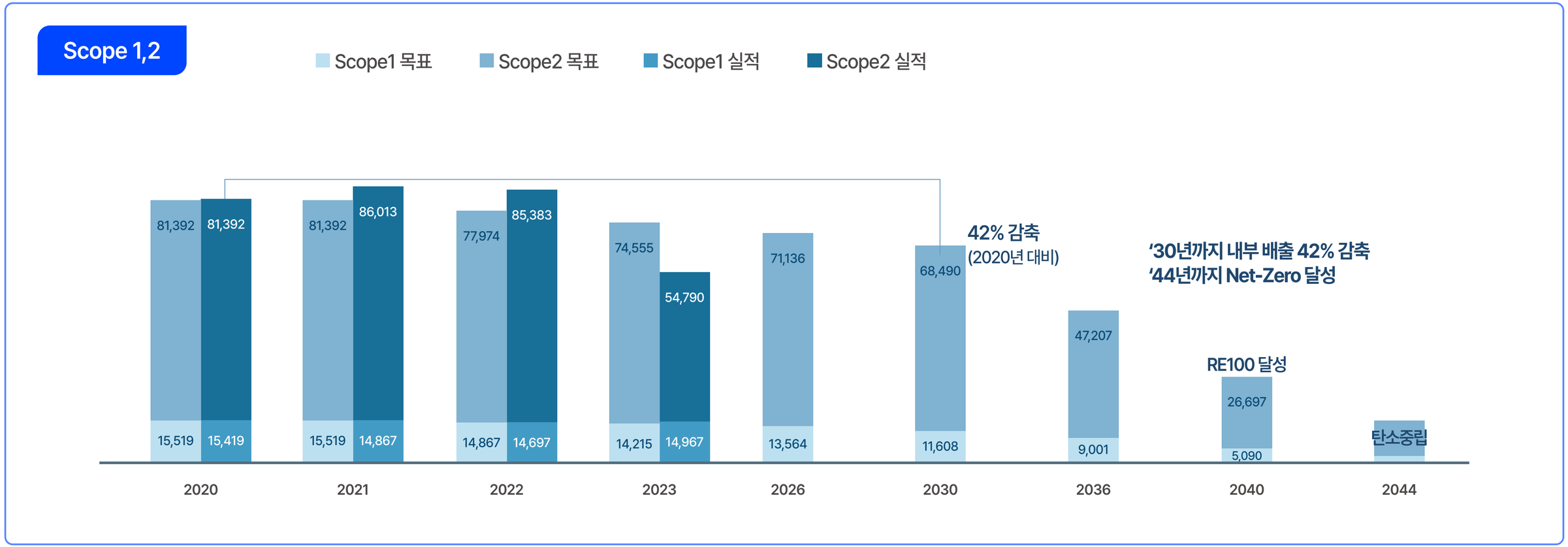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그룹 리스크 관리 규정	그룹ESG리스크 관리규칙	그룹 ESG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수립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등	ESG리스크 정의 ESG리스크 \관리 관련 하위 규정 명시	ESG 리스크 관리 인식, 측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ESG리스크 관리의 Best Practice 기후리스크 관리, 유의영역 관리, 환경사회리스크 리뷰, ESG리스크 시스템 등

5. Metrics & Targets

넷제로 목표

신한은행의 넷제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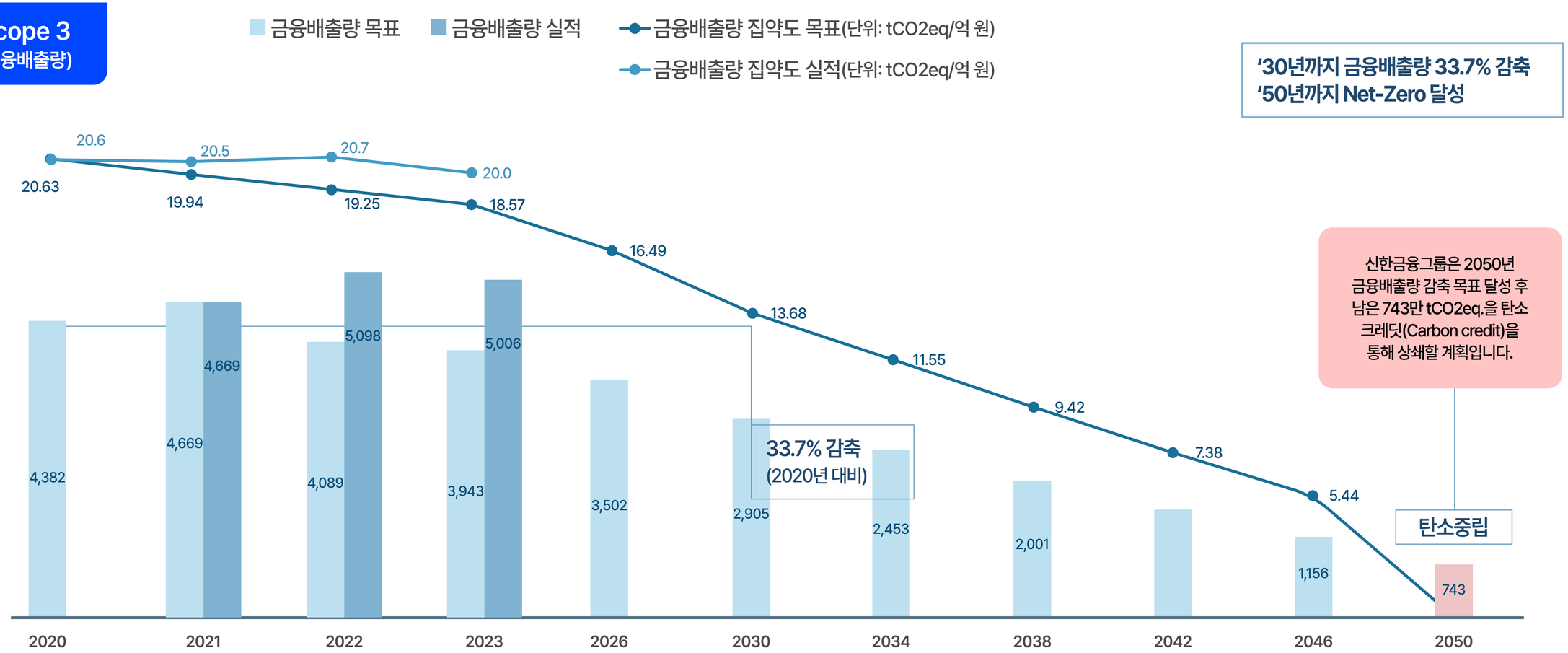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넷제로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그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전 그룹사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4년까지 내부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배출량의 경우 SBTi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금융배출량 제로 달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 Metrics & Targets

넷제로 목표

Scope 3
(금융배출량)



5. Metrics & Targets

넷제로 목표

신한은행의 넷제로 목표 달성 로드맵

Scope1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차량 휘발유 이며, Scope2는 전력 사용량입니다. 신한은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모두 친환경(전기 및 수소) 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에 해당하는 2030년에서 2035년 시점에서 신한의 Scope1은 Scope2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Scope2의 경우, 디지털 금융의 확대 및 AI 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비중을 높일 뿐 아니라 설비 투자와 PPA 장기 거래 확대 통해 넷제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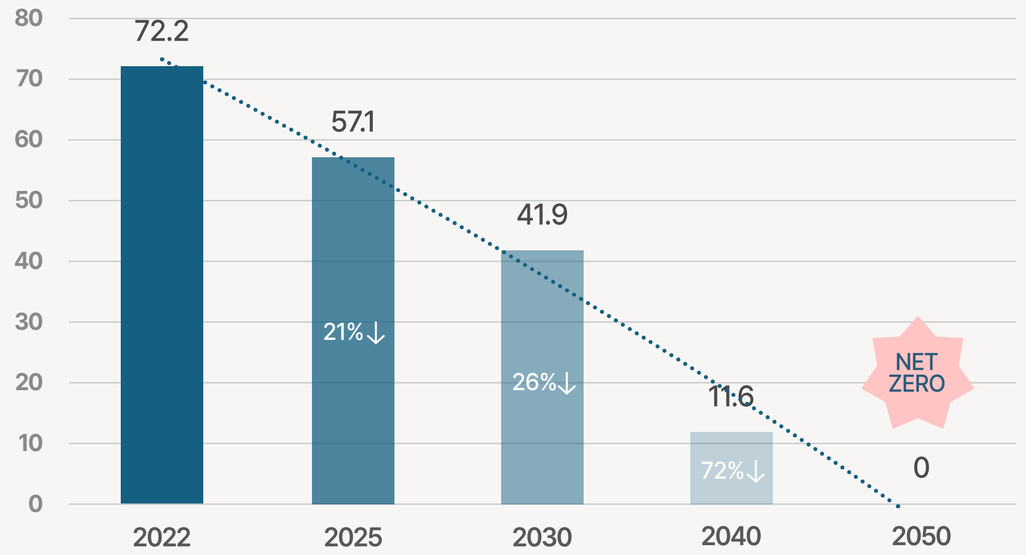
5. Metrics & Targets

내부 온실가스 저감 목표 - Scope 1, 2

신한은행은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 제시하는 파리기후협약 (1.5°C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툴을 활용하여 내부 온실가스배출량을 연 4.2% 감축하여 2050년에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2-279호)'을 기반으로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배출량은 합리적 보증 수준에서 제3자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50 내부 온실가스배출량 저감 목표

(단위 : 천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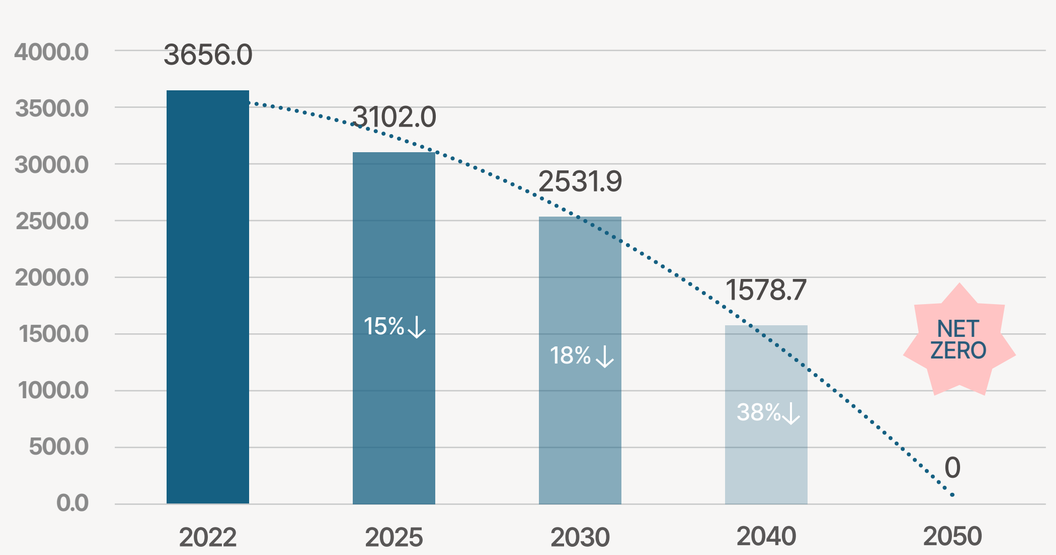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 Scope3

신한은행은 PCAF 방법론을 활용하여 금융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감축목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SBTi 방법론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탄소 업종의 전환 자금 지원 및 저탄소 중심의 자산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배출주체의 배출량 감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배출 업종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및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및 저탄소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입니다. 금융배출량을 구성하는 자산에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채, 상업용 부동산, 차량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2050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단위 : 만tCO_2e)



5. Metrics & Targets

내부탄소 가격 및 자금조달

내부탄소 가격

신한은행은 GHG Protocol 기준에 따라 Scope 1, 2, 3 온실가스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자체 배출량과 금융 배출량 또는 감축량에 대해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cope 1과 2의 탄소 가격은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녹색프리미엄, REC, PPA 세 가지 수단의 비용을 기반으로 톤당 약 10~13만 원의 내부탄소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내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 참여, 구매, 절감, 및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cope 3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의 탄소 가격은 NGFS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된 국가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탄소 가격은 여신 및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나 계약 조건 반영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NGFS의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MESSAGEix-GLOBIOM, REMIND-MAgPIE 세 가지 기후경제통합모형(IAM)을 검토했으며, 이 중 대한민국의 기후 실정을 가장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GCAM 모형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및 금융지원의 저탄소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룹의 Zero Carbon Drive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자금 조달

신한은행은 2022년 시중은행 최초로 1,000억 원의 녹색 채권 발행 이후 2023년에는 1,500억 원, 2024년에는 2,500억원발행에 성공하여 총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은행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받는 이차보전금액을 녹색대출 금리우대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조달·자금운영·시스템에 이르는 녹색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녹색채권	1,000	1,500	2,500

내부탄소가격 개요

내부탄소가격 유형	그림자 가격
탄소가격 결정 방법	•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비용 - NGFS 시나리오상 가격(Price in the NGFS scenario)
내부탄소가격 도입 목적	• 내부 임직원 행동변화(Change internal behavior)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유도(Drive energy efficiency) • 투자자산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investments) • 저탄소 관련 기회 파악 및 활용(Identify and seize low -carbon opportunities)
배출량 집계 범위	Scope 1, 2, 3(Upstream)
가격 책정 방식	변동 가격(Evolutionary)
실제 적용한 내부탄소가격 – 최소	1,156.06원 (1 US$2010/tCO2)
실제 적용한 내부탄소가격 – 최대	2,314,894.5원 (2,002.4 US$2010/tCO2)
내부 탄소 가격이 적용되는 비즈니스 의사 결정 프로세스	• Operations 운영 - Procurement 조달 - Risk management 위기 관리 • Opportunity management 기회 관리

5. Metrics & Targets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 비중 및 배출량 현황

기후 리스크로 야기되는 산업별 익스포저

신한은행은 그룹 환경사회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해 신한금융지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회 유의업종(12개)과 은행에서 선정 및 관리하고 있는 고탄소업종(4개)를 중심으로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익스포저 데이터를 분석 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강화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기후리스크에 단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영역임을 감안하여 고탄소 및 유틸리티,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익스포져 비중을 별도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준연월 : 2024.12

업종	익스포저 비중 (%)	금융배출량 (tCO2eq)	집약도 (tCO2eq/억 원)
철강/비철금속	3.8	747.0	81.9
비금속광물	0.9	208.5	94.1
석유/화학	5.9	852.8	60.2
유틸리티	1.2	302.4	105.9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기반의 저감 목표 설정

신한은 그룹차원에서 2020년 SBTi의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을 기반으로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설정하여 금융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를 핵심 지표로 삼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3.7% 감축, 2050년 금융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제지, 운송, 화학,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차량대출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경로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업종별 배출량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업종 내 기업들의 평균 집약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동일 업종 내 고집약도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Metrics & Targets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

신한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입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 9월 시중은행 중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이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제3자 독립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대상 프로젝트가 적도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현황 및 결과를 적도원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은 적도원칙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구분	적용기준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	프로젝트 총액이 USD 10백만 이상
프로젝트 금융(PF)	프로젝트 총액이 USD 10백만 이상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PRCL)	다음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대출 • 총 대출금액의 50% 이상이며 고객이 실질적 지배권(직·간접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사용 • 총 대출금액 및 당행 약정금액이 USD 50백만 이상 • 대출기간이 2년 이상
브릿지론	프로젝트 총액이 USD 10백만 이상
리파이낸싱 및 인수금융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파이낸싱 및 인수금융 • 기존 프로젝트가 적도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 프로젝트 규모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 계약서 서명 시점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도원칙 Roles and Responsibilities

구분	실행방안
적도원칙 전담조직	당행에서 추진하는 금융거래의 적도원칙 적용 및 준수 여부 검토 • 프로젝트 관련 환경사회 리스크의 원인 및 세부내용 파악 후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조언 • 적도원칙 이행 관련 정보 공개 및 보고서 작성 • 적도원칙 및 관련 표준의 개정에 따른 당행 지침의 개정
프론트부서/영업점	• 고객 커뮤니케이션 • 프로젝트 관련 평가자료 수행 및 제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 적도원칙 요구
적도원칙 심사부서	• 프로젝트 관련 딜 심사 과정에서 적도원칙의 해당 여부를 파악 • 적도원칙 전담부서의 최종 검토 의견서를 필수적으로 확인 후 심사 결과에 반영
경영진	적도원칙 대상 거래에 고위험 환경사회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등 필요시 별도의 검토 및 승인 관련 절차를 이행

5. Metrics & Targets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

적도원칙 이행 현황 보고 - 프로젝트 금융(PF)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CL)

2024년도에는 총 19건의 프로젝트가 적도원칙 적용대상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상이 되었던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섹터별/지역별/국가별/독립검토 시행 여부로 세분화한 거래 현황은 우측표와 같으며 2024년도에 검토된 프로젝트 중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은 5건, C등급은 1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적도원칙검토 건수는 2024년 기준으로 검토 완료 및 취급 완료한 건수로 산정되었으며, 총 적도원칙검토 건수는 적도원칙협회 기준에 맞춰 협회 웹사이트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Training

신한은행은 전 직원 및 적도원칙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적도원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적도원칙 전담 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지도 교육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집중 교육에서는 적도원칙의 10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적도원칙의 취지, 스크리닝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과 책임(R&R)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별 맞춤형 Q&A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전담 부서는 연차총회 참석 및 대외기관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며 적도원칙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간담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적도원칙 운영 현황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부서들과 협업하여 적도원칙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적도원칙 이행 현황

	2021			2022			2023			2024		
	A	B	C	A	B	C	A	B	C	A	B	C
Sector												
광업												
인프라	1				1							
석유 및 가스				1	1	1	2	3				
발전		4			1						2	1
기타					2	3		2	7		3	13
Region												
미주				1	1	2	2	1	3			3
유럽/중동/아프리카		1				2			2			
아시아태평양	1	3			4			4	2		5	11
지정국가												
지정국가	1	4		1	5	4	2	5	7		5	13
비지정국가												1
독립검토												
실시	1			1	1		2	2				1
미실시		4			4	4		3	7		5	13

	A	B	C	A	B	C	A	B	C	A	B	C
소계	1	4	0	1	5	4	2	5	7	0	5	14
총 검토건수		5			10			14			19	

신한은행
Finance, Move Together